

# 전기·연료비용 낮아 과소비 유발

현대경제연구원, 식품은 높아 ... 명목소득 2만달러에 3만달러 생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명목소득은 2만달러 정도이지만 의·식·주에 드는 비용이 낮아 구매력을 고려한 실제 생활수준은 3만달러대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월3일 <명목소득은 2만달러, 생활수준은 3만달러-실질구매력으로 본 한국의 생활수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OECD가 2011년 발표한 2008년 기준 구매력평가 부문별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을 비교해 한국의 의·식·주·복지·문화 소비가격 수준을 평가했다.

우리나라 의류 및 신발 가격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 낮았다. OECD 평균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의류 및 신발가격은 90으로 미국(83)보다 높지만 영국(103), 일본(154)보다 낮았다.

식료품 가격은 OECD 평균보다 3% 높았다. 미국은 85로 낮았고 일본은 164, 영국은 105로 높았다. 세부항목 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곡류(89)를 제외하고 고기(164), 우유·치즈·계란(122), 과일·야채·감자(120) 등이 모두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기호식품인 주류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OECD 평균보다 각각 20%, 33% 높았지만 담배 가격은 51% 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주택, 수도, 전기, 연료비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47% 저렴했다.

특히, 수도 및 전기, 연료비는 53으로 일본(91), 영국(118), 미국(93)에 크게 낮았다. 자동차·기차·차량 등 운송 서비스, 운송장비 및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교통비는 OECD 평균보다 30%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명목기준 주거 임대료는 방 3개짜리 월세 아파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602달러로 영국(2144달러), 일본(1791달러)보다 높았다.

의료 서비스와 의료용품을 포함하는 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48% 낮아 의료비 부담도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적었다.

우편·전화·팩스 장비 구매 및 서비스 관련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통신비는 41%, 오락 및 문화 관련비용은 24%, 음식 및 숙박 서비스 가격은 5% 각각 낮았다.

보고서는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만2778달러로 세계 34위로 평가돼 선진국과 차이가 있지만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한 GDP는 3만1714달러(25위)로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민경제와 밀접한 필수 식료품, 특히 고기, 야채 가격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식료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전기, 수도 등 인프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과소비나 재정부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적정수준으로 점차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04>